

청주 현도중, 제5회 금강누리길 걷기 축제에 사물놀이 '축하공연'

지역 학교가 지역주민과 마을 행사를 함께 펼치며 봉사하는 계기
(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뉴스일자 : 2019-09-19 15:08:43



19일 충북 청주 현도중학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물놀이 공연으로 식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주교육지원청)

충북 청주 현도중학교(교장 김명철)는 19일 현도오토캠핑장에서 열린 '제5회 금강누리길 걷기 축제'에 사물놀이부 1~2학년 학생 13명 전원이 참여해 재능기부로 사물놀이 공연 봉사활동을 벌였다.

청주에서 유일하게 금강을 끼고 있는 현도면에서는 올해 다섯 번째 금강누리길 걷기 행사를 열었다.

현도중학교 학생들은 추석 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사물놀이 공연 연습을 하면서 지역과 지역주민을 섬기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준비했다.

현도중의 역사 깊은 사물놀이 공연은 '어진이의 도읍지' 현도(賢道) 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학생들이 지역의 주민과 마을 행사를 함께 펼치며 봉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배민경 학생(2년)은 "우리 현도중학교 학생 한 명 한 명은 우리 마을 전체가 키워준 것이기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당연한 방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도중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도면 관광명소 새봄맞이 대청소 등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실현했으며 장애인 시설 에덴원 등에서 사물놀이 공연 재능기부를 하는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식